

강의 엿보기



● 신입생 세미나

‘실내악의 이해’

이번 호 강의 엿보기에서는 오희숙 작곡과 교수님의 신입생 세미나인 “실내악의 이해”를 살펴봅니다. 강의와 더불어 대학원생들의 연주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신입생 세미나를 통해 음악의 세계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개설된 오희숙 선생님의 신입생 세미나 ‘실내악의 이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내악을 맛보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실내악은 소규모 편성의 기악 앙상블로 구성되는데,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곡적 기법과 미학적 이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분야이다. 그중에서도 4개의 악기가 모여 연주하는 4중주가 가장 일반적이고 작품 수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편성은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의 현악 4중주이다.

“현악 4중주는 실내악 중 가장 완성된 장르예요. 표현력이 뛰어나고, 음색이 유사한 악기끼리 결합되기 때문에 조화도 뛰어나고 작곡 기법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렇다 보니 작곡가의 기량과 미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험 장르이기도 하지요.”

현악 4중주 이외에도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또는 호른, 바순으로 구성된 관악 4중주 등의 다양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실내악의 매력적이다. 이 수업의 핵심적인 줄기는 책(『들으며 배우는 관현악 문헌 : 실내악 1, 2』, 심설당, 2003)을 발췌해 읽은 것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이해를 갖춘 후 대표적인 곡들을 DVD등을 통해 두 가지 버전 이상의 연주로 들어 보는 것이다. 음악을 감상한 후에는 대부분이 비전공자인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느낌과 주요한 특성을 물어보아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호 <열린지성>이 참관한 10월 13일의 수업에서는 하이든에서부터 시작된 현악 4중주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따라가며 대표적인 곡을 들을 수 있었다. 300여 곡의 실내악 중 80여 곡이 현악 4중주였던 하이든의 곡은 민요풍 주제를 택해 위트가 있고 밝으며 명료한 데 비해, 모차르트는 선율이 강해 노래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베토벤은 총 16곡을 남겼지만 현악 4중주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장르에 예술적인 엄격성을 부여했다. 특히 후기의 베토벤 현악 4중주들은 그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괴팍해지면서 장르의 전통을 깨는 등 낭만주의의 전통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시간 가량의 수업 이후에는 음대 대학원생 세 명으로 구성된 클라리넷·바이올린·피아노의 트리오를 초청해 현장에서 다리우스 민요 등의 곡을 직접 듣기도 했다. 이후 연주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들은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클라리넷·바이올린·피아노와 같은 편성의 곡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곡을 선정했느냐’ ‘연주 중 사용한 주법은 무엇이나’ ‘피아노는 독주악기라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악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부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느냐’ ‘몇 번 맞춰보고 왔느냐’ 와 같은 질문까지 강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클래식 음악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한편으론 다 그게 그저 같고 비슷하다’ ‘구별이 안 된다’ 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는 고등교육에서 음악 이론과 실제 감상의 간극이 결코 작지 않음을 반증한다. 그런 만큼 음악 이론과 음악의 역사를 바탕으로 ‘실내악’이라는 고전 음악의 한 분야의 의미를 배워가며 들어보는 이 수업이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의 한 영역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었으면 한다.

● 글 : 이명지 / 사진 : 서유경